

## 「호외시대」 재론(再論)

— 『매일신보』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배 정 상\*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서해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인 「호외시대」를 『매일신보』에 수록된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외시대」의 문학사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기존의 연구의 시각과는 달리, 「호외시대」 창작의 배경이나 서사 진행의 핵심 요소들을 『매일신보』의 미디어적 배치와 전략을 통해 살피고자 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1930년 2월 『매일신보』는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사장 이하 편집진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지면 개편을 실시하였다. 당시 『중외일보』에 근무하던 최서해는 『매일신보』로 이동하여 학예면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4면에서 8면으로 지면을 확대한 『매일신보』는 4면과 5면을 '소년소녀'란과 '가정'란으로 편성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는 소설 연재

---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주제어: 최서해, 호외시대(號外時代), 매일신보(每日申報), 신문연재소설, 장편소설, 학예면, 가정란, 검열, 대중독자

Seohae Choe, *Ho-ae Sidae, Maeil Sinbo*, serial novels of newspapers, full-length novel, the art and science page of a newspaper, the page for home, censorship, popular reader

를 시작하였다. 5면 '가정'란에 연재된 최서해의 『호외시대』는 주로 한글에 익숙한 여성 중심의 일반 대중독자를 위한 소설이었다.

『매일신보』의 학예면 분화 전략에 따라 연재된 『호외시대』는 193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호외시대』는 식민지 검열을 일정 부분 의식하면서도 나름의 대응 전략을 실현코자 했으며, 대중 독자와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민한 작품이었다. 또한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서사 장치와 서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또는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고, 『호외시대』가 지닌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호외시대』에 대한 편향된 문학사적 시선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근대 시기 신문연재소설이 지닌 독특한 자질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되길 기대해 본다.

## 1. 들어가며

한국의 근대 문학사에서 최서해의 존재는 단연 이채롭다. 그의 대표작들은 작가 자신의 처절한 간도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폭력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독특한 스타일로 인해 그는 '신경향파'의 대표 작가가 되었으며, 일본 유학생 출신 지식인 작가가 중심이던 당시 문단에 커다란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최서해의 모든 작품이 간도 체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극단적인 폭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서해가 발표했던 작품들 중 절반 이상이 '신경향파'의 문학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해를 '신경향파'의 대표적인 작가로 규정하는 기존 문학사의 시각은 매우 공고해 보인다.

물론 최서해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최서해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구획하는 데 매우 합당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최서해 문학의 독특한 위상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최서해 문학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표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작품들이 소홀이 다루어지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과거의 작가 또는 작품에 문학사적 의미 또는 위상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종종 이러한 점에서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지금까지 최서해 연구의 대부분이 '신경향파'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초기작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 역시 여타 작가와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최서해 문학을 구별해 내려는 욕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최서해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인 「호외시대」(號外時代)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작가가 짧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 병고와 싸우며 치열하게 완성한 유일한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호외시대」는 「탈출기」, 「홍염」, 「기와와 살육」 등의 초기 대표작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외시대」는 작가가 기존의 소설 실험에서 얻어낸 성과를 좀 더 성숙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는 본격적인 장편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말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호외시대」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이 신문연재소설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연구자로 하여금 '항일'과 '친일' 또는 '예술성'과 '통속성'과 같은 이분법적 코드를 작동하게 하여 작품에 대한 순수한 접근을 방해해 왔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신문연재소설이라는 특성은 종종 민족주의적 인식 기제나 문학의 대중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작동시키곤 한다.

몇 차례 「호외시대」에 주목하였던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고 최서해 문학의 위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나름의

시도였던 셈이다. 특히, 조남현, 한수영, 광근, 한점돌, 김창식, 윤대석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 연구는 각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호외시대』라는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자 했다.<sup>1)</sup> 하지만 이들 연구는 『호외시대』가 당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임을 지적하면서도, 당시의 신문 미디어와 그 안에 담긴 텍스트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소홀한 느낌이다. 김창식의 경우 『호외시대』가 지닌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했으나, 그 시도가 1930년대 신문연재소설이 지닌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는 데 머물러 있다.

특히, 1994년에 광근이 펴낸 『호외시대』 단행본은 『호외시대』라는 작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호외시대』 단행본의 출간은 『호외시대』라는 텍스트가 지닌 신문연재소설이라는 본래적 특성보다 작품의 주제 및 내용, 갈등 양상 등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호외시대』를 신문연재본으로 읽는 것과 단행본으로 보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신문연재본을 읽는다는 것은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록된 매체의 소설 기획 방침, 지면배치, 독자전략, 언어표기, 삽화, 독자의 반응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읽기 방식은 텍스트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논의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호외

---

1) 조남현(1988), 『崔曙海의 『號外時代』, 그 갈등 구조』,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한수영(1993), 『돈의 철학, 혹은 화폐의 물신성을 넘어서기』, 『현대문학의 연구』 4; 광근(1993), 『<號外時代> 연구』, 『동국논집』 14; 한점돌(1995), 『최서해와 프로 심파다이저의 미학 : 장편 『號外時代』를 중심으로』, 『서강어문연구』 Vol.3 No.1; 김창식(1995), 『1930년대 한국 신문소설의 특성과 그 존재의미에 관한 일연구 : 최서해의 『호외시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2; 윤대석(2002), 『시대정신과 '풍속개량'의 대립과 타협 - 『호외시대』론』, 『최서해 문학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시대」가 지닌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호외시대」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수록된 신문연재소설이었음에 주목하여, 당시 『매일신보』 학예면의 소설 기획과 지면 배치, 독자전략 등을 통해 「호외시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예컨대 1930년 2월 『매일신보』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편집진이 교체되고 지면을 4면에서 8면으로 크게 확장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호외시대」는 이러한 『매일신보』의 체제 변화 및 지면 배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또한 「호외시대」는 당시 『매일신보』 문예면의 지면 배치 전략에 따라 '가정판'에 연재되었는데, 이러한 특성 역시 「호외시대」의 창작 원리 및 독자 전략을 살피는 데 유효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매일신보』와 최서해

최서해의 「호외시대」는 1930년 9월 20일부터 1931년 8월 1일까지 『매일신보』의 지면에 연재되었다. 그런데 카프 회원이자 신경향파의 대표 작가인 최서해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결합이 꽤나 어색해 보인다. 그렇다면 최서해의 「호외시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매일신보』에 연재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은 「호외시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1930년 2월 『매일신보』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사장 이하 편집진을 교체하고 지면을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다.<sup>2)</sup> 이에 따라 영국 유학과 출신 박석운(朴錫胤)이 한국인 최초로 부사장에 취임하고, 실질적인 편집권을 얻게 되었다.<sup>3)</sup> 또한 신문 발행 예산을 크게 늘려, 2월

2) 「我社飛躍の大擴張」, 『매일신보』, 1930.2.10.

3) 박석운은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학

11일부터는 기존 4면 발행에서 석간 8면으로 지면을 확대하였다. 박석운의 부사장 취임과 함께 기존의 편집진 역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정치부장에 남상일(南相一), 편집국장 대리에 이익상(李益相), 사회부장에 정인익(鄭寅翼), 학예부장에 최상덕(崔象德), 학예부 기자에 최학송(崔鶴松) 등이 새롭게 임명되었다.<sup>4)</sup>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매일신보』 측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최서해는 1930년 2월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매일신보』의 체제 변화에 따라 『매일신보』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직전까지 최서해는 『중외일보』에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사원들의 월급이 밀리게 되고, 비상식적인 인사 교체가 일어나게 되자 당시 정치부원(政治部員)이었던 최서해는 사회부장(社會部長) 정인익, 학예부원(學藝部員) 최상덕과 함께 동시에 퇴사하였다.<sup>5)</sup> 당시 비정상적인 신문사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핵심 간부들이 『매일신보』의 체제 개편과 함께 동시에 이동한 셈이다.

최서해의 『매일신보』로의 이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단 동료들은 최서해의 가난과 병고를 이해하면서도 『매일신보』로의 이동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절친한 벗 박상엽은 “曙海는 中外日報에 入社한 뒤 그가 退社할 때까지(退社라느니보다 休刊될 때까지) 二年 동안을 한달치박개 月給봉투를 손에 쥐여 본 일이 없

---

하였으며, 최남선의 여동생 최설경(崔雪卿)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는 『매일신보』 이후, 주로 간도에서 활동하며 항일 무장투쟁 세력을 파괴·분열시킨 대표적인 친일파로 평가된다. 당시 『매일신보』는 한국인 부사장을 임명하여 독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으며, 친일파 박석운을 선택하여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석운의 친일 이력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상세하다. 장세운(1993), 『박석운』, 『친일파99인』, 돌베개, pp. 51-56 참조.

4) 『本社辭令』, 『매일신보』, 1930.2.13.

5) 西京學人, 『休刊中外日報論』, 『철필』 4호, 1931.1.11, p. 8.

다”<sup>6)</sup>고 했으며, 『매일신보』 학예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명온은 “그가 『중외일보』에서 每申으로 건너오게 된 것도, 유일한 목적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신문사였기 때문”<sup>7)</sup>이라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당시 최서해의 『매일신보』로의 이동이 극심한 생활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김동환(金東煥)은 이러한 최서해의 선택을 심분 이해하면서도, “서해는 이십 오류에 죽어야 옳았다”라거나 「號外時代」를 비롯한 만년의 작품들을 “우작태작”(愚作駄作)이라고 매섭게 비판하며 예술가로서의 최서해가 훼손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sup>8)</sup>

그와는 달리 김동인은 최서해를 이광수, 염상섭, 현진건과 나란히 논하는 자리에서, 최서해가 『매일신보』로의 이동으로 인해 카프에서 제명되었으나, 「먹고야 산다」는 한마디 말로 제명을 달게 받았다고 회고했다.<sup>9)</sup> 같은 글에서 김동인은 최서해의 장편 「호외시대」에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매일신보』에서의 생활이 ‘작품의 제재를 넓히고 더욱 성숙한 사회에 대한 시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결국, 최서해의 『매일신보』로의 이동은 생활고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어쩌면 그는 박석윤의 부사장 취임을 통해 그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외일보』 시절 최서해는 정치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매일신보』로 이동하면서 학예부 일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서해에게 자신의

6) 朴祥燁, 「感傷의 七月! -曙海靈前에- (十一)」, 『매일신보』, 1933.7.26.

7) 李明溫, 「無骨好人 崔曙海」, 『希望』, 1962.2 (곽근(1987), 『최서해 전집』 下, 문학과지성사, p. 405 재인용).

8) 김동환, 「生前의 曙海 死後의 曙海」, 『신동아』, 1935.9 (곽근(1987), 『최서해 전집』 下, 문학과지성사, pp. 402-403 재인용).

9) 金東仁, 「作家四人 (五)」, 『매일신보』, 1931.1.8.

적성과 재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였다. 『중외일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덕과 정인익의 동반 이동 역시 최서해의 『매일신보』 생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학예부장직을 맡았던 최상덕이 돌연 사퇴하고, 그 자리를 최서해가 대신하게 되었다. 학예부장을 맡은 최상덕은 주로 최독견(崔獨鵬)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며, 「승방비곡」(僧房悲曲, 1927), 「향원염사」(香園艷史, 1928~1929)를 『조선일보』에 연재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는 『중외일보』를 퇴사하고, 『매일신보』 학예부장을 맡게 되자, 곧바로 장편소설 「암야곡」(暗夜曲)의 연재를 계획한다. 『매일신보』는 최상덕에 대한 정식 인사 발령 기사가 나기 이틀 전인 1930년 2월 11일부터 「암야곡」의 연재 광고 기사를 게재한다. 2월 14일자 광고 기사부터는 ‘작자의 말’까지 상세하게 게재된 것을 보아, 소설연재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런데 2월 18일까지 보이던 「암야곡」의 연재 광고 기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암야곡」은 『매일신보』 지면에 영원히 연재되지 않았다. 아마도 최상덕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매일신보』를 떠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11)</sup> 이로 인해 최서해가 대신 『매일신보』의 학예부장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sup>12)</sup> 몇 달이 지난 1930년 9월 학예부장 최서해는 드디

10) 「連載小說豫告」, 『매일신보』, 1930.2.14.

11) 최상덕의 『매일신보』 퇴사 원인이나, 「암야곡」이 연재되지 않은 원인은 ‘매일신보 무궁화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매일신보』는 대대적인 체제 변화를 실시하면서, 편집과 제호 때문에 커다란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원절의 축하기사 활자가 부사장 취임사보다 작다는 것과 제호의 도안을 일본 제국의 지도에서 무궁화로 바꾸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판으로 『매일신보』 사장 마쓰오카와 부사장 박석운은 상당한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건이 새롭게 학예부장으로 임명된 최상덕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사퇴 역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신보 무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이 상세하다. 정진석(2005),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pp. 141-145 참조.

12) 김동인은 “東亞日報의 社會面이 憑虛의 罨拂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돈과 정돈 못됨



어 자신의 처녀 장편인 「호외시대」를 『매일신보』 지면에 연재하게 된다.

기실 최서해가 『매일신보』에 자신의 작품을 연재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매일신보』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몇 편의 작품을 연재한 바 있었다. 그는 정식으로 문단에 이름을 올리기 전 이광수의 「개척자」를 읽고 독후감을 투고한 바 있으며,<sup>13)</sup> ‘연작소설(連作小說) 「홍한녹수」(紅恨綠愁)의 첫 번째 연재를 맡기도 하였다.<sup>14)</sup> 또한 1927년 1월 1일 신년호에는 ‘소설」 「쥐 죽인 뒤」를 게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같은 지면에 정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와 관련된 소설, 동화, 동요 등이 게재되었는데, 최서해의 소설은 ‘쥐」를 소재로 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이 아동용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매일신보』의 편집 방향과 다르긴 하지만, 당시 문단에서 이름 높았던 최서해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게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28년 10월 6일부터 21일까지는 최서해의 ‘短篇小說」 「부부」(夫婦)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이서구의 「사랑의 디옥」의 연재가 끝난 뒤 다음 장편소설을 선정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게재한 작품인데,<sup>15)</sup> 연재 마지막에 표기해 놓은 것처럼 1928년 8월에 쓰인 것을 가져다 발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이 이전에 『매일신보』에 발표하였던 「쥐죽인 뒤」와 동일한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부」는 한 회차 짧은 분량의 소설인 「쥐죽인 뒤」의 내

---

이 함부로 석진 每日申報의 學藝面이 曙海의 씬볼이며 月給에 對한 한낫 責任막임으로박게는 볼 수가 업는 朝鮮日報의 學藝面은 想涉의 씬볼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金東仁, 『作家四人(五)』, 『매일신보』, 1931.1.8.

13) 최학송, 「開拓者를 讀하고 所感대로」, 『매일신보』, 1918.3.3.

14) 曙海 崔鶴松, 「紅恨綠愁(1회 남은 씬)」, 『매일신보』, 1926.11.14.

15) “◇ 사랑의 디옥은 만천하 독자의 애독중에 몇칠 안으로 쫓이나게 되었습시다 ◇ 다음에 내일 장편소설이 아즉 선명되지 못하얏슴으로 위선 우리 문단의 일홈 높흔 최서해씨의 『부부』이라는 단편을 게재하게 되었습시다”, 『每日申報』, 1928.10.4.

용을 16회차로 늘려 놓은 작품이다. 「쥐 죽인 뒤」가 「부부」로 확장되는 과정에는 흥미로운 지점이 존재한다.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쥐 죽인 뒤」와 「부부」는 공통적으로 두 부부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쥐를 결국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쥐 죽인 뒤」의 경우 한 회 분량의 매우 짧은 이야기라서 사건의 진행이 매우 빠르게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이야기 말미에 작품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부부」의 경우에는 총 16회 분량으로 연재되었으므로, 「쥐 죽인 뒤」의 서사적 뼈대에 다양한 요소를 확장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일반 평서형의 문장에서 존대법 문장으로 바뀌었다. 작품의 분위기를 좀 더 가볍고 밝게 바꾸어 독자들이 더욱 편하게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듯하다. 그리고 「부부」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알콩달콩한 삶의 모습을 두 인물의 심리를 통해 더욱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부부의 가난을 계급적 차원으로 환치시키는 영화 관람 장면이 추가되었고, 주제 의식 또한 더욱 심화되었다.<sup>16)</sup>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아내의 별거벗은 몸을 “명공(名工)의 신수(神手)에서 찌러진 석고조각”<sup>17)</sup>으로 묘사하는 에로틱한 장면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다 일어난 아내의 젖가슴을 그대로 노출시킨 8회와 상의를 탈의한 두 남녀의 뒷모습을 그린 9회의

16) 두 작품의 주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오오 이것이 사람이다 제게 리해관계가 업서서는 조화하고 제것을 위하여는 남의 목숨 썩앓고 그럼으로 제게 무슨 불상사가 오는 썩에 우리는 량심의 고통을 밧는다”, 崔曙海, 「쥐 죽인 뒤」, 『每日申報』, 1927.1.1; “남의 목숨을 썩어슴으로써 자기의 생(生)을 더 충실이 한다면 그것이 돌오혀 생의법칙(生의法則)이라 하여 감히 헿하고도 후회치 안치만 남의 생명을 썩어섯슴으로써 자기의 생명에 손실이 잇다면 그썩에는 그것을 불인(不仁)이라 늦기고 후회하는 것이 이 세상 사 사람의 도덕이 아닌가? 선악의 비판이 그러케 갈리고 인과물이 썩한 그러케 서는 것이 아닌가? 오오 모든 것은 리해(利害)에 지배되는구나! (중략) 언제나 곱은 세상이 오누?”, 최서해, 「夫婦」, 『매일신보』, 1928.10.21.

17) 崔曙海, 「夫婦」, 『매일신보』, 1928.10.14.

삼화와 결합하여 매우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부」의 특성은 이 작품이 신문연재소설이 지닌 대중적 특성을 고루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작가 최서해 역시 신문 연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집필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1930년 2월 『매일신보』에 입사한 최서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예부장이 되었고, 『매일신보』 학예면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기획·실행에 옮긴다. 1930년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면 확대와 체재 개편은 『매일신보』 학예면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1930년 2월 11일, 4면에서 8면으로 확장한 『매일신보』는 사회면인 3면 하단에 그동안 연재해 오던 양백화(梁白華)의 「삼국연의」(三國演義)를 배치하였고, 4면과 5면을 새롭게 문예면으로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4면은 '少年小女'라는 표제를 붙여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지면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5면은 '가정'이라는 표제를 통해 부인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지면 배치를 시도하였다. 특히, 5면 '가정'란에는 '진비탐정(神秘探偵)이라는 표제로 양유신(楊柳新)이 번역한 「해괴」(海怪)가 연재를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아동들의 문예 작품이나 전래동요, 괴담·기담, '결혼이혼사실담' 등을 모집하여 게재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새롭게 문예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sup>18)</sup>

결국 최서해의 장편소설 「호외시대」는 이러한 『매일신보』의 체제 변화 및 지면 배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연재된 작품이었다. 「호외시대」는 1930년 9월 20일, 양유신의 「해괴」의 연재가 끝난 다음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연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3면 사회면에는 양백화의 「삼국연의」, 4면 '소년소녀'란에는 정인택의 '少年小說' 「눈보라」가 연재되고 있었으며, 5면 '가정'란에는 새롭게 「호외시대」가 연재되었다. 「삼국연의」는 국한문 혼용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한자에 익숙한 전통적 독자층을 그 대상으로

18) 이희정(2013), 「193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 문학의 전개 양상: 미디어적 전략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pp. 343-350 참조.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인택의 『눈보라』(1930.9.11~1930.10.5)는 김소운이 번역한 『천일야기담』(千一夜奇譚, 1930.3.14~1930.9.10)에 이어 연재되었으며, 『少年小說』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으로 보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그와 동시에 연재된 『호외시대』는 『삼국연의』, 『눈보라』와는 달리 ‘가정’란의 독자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란은 여성·부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 대중독자들을 주된 대상 독자로 삼았다. 다시 말하자면 5면 ‘가정’란의 『호외시대』는 3면 사회면에 국한문혼용체로 연재된 『삼국연의』나 4면 ‘소년소녀’란의 『눈보라』와는 다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며, 그 주된 독자층은 ‘가정’란이 상정했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반 대중 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sup>20)</sup> 이러한 특성은 주로 잡지에 수록되었던 최서해의 초기 대표작들과는 다른 『호외시대』만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 『호외시대』의 『매일신보』 연재 양상과 의미

#### 3.1. 식민지 검열과 미디어 전략

문단의 증견작가로 명성을 높이던 최서해는 『매일신보』 입사 전에도 꾸준히 신문에 소설 게재를 시도하였다. 그는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몇 편의 단편을 수록한 바 있다.<sup>21)</sup> 특히, 1928년 『동아일

19) 그 이후에도 4면 ‘少年小女’ 지면에는 김일봉의 『정자나무뭉치』(1930.10.8~26), 민태원의 ‘과학소설’ 『五色의 소리별』(1930.10.28~1932.3.20) 등 ‘소년소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 연이어 연재된다.

20) 참고로 『호외시대』 연재되기 열흘 전인 1930년 9월 10일부터는 ‘家庭’이라는 표제 아래 ‘婦人趣味’라는 표기가 추가되기도 한다.

21) 『시대일보』에는 『보석반지』(1925.6.30~7.1), 『만두』(1926.7.12)를, 『동아일보』에는

보』에 연재된 「폭풍우시대」(1928.4.4~1928.4.12)는 이후 신문에 연재된 유일한 장편소설인 「호외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短篇小說’이라는 표제 하에 연재된 「폭풍우시대」는 3·1운동의 여파로 간도로 떠난 세 청년이 ‘X적단’의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위기에 처하지만, 조병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뒤 그와 함께 동포들의 교육사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한창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중 9회 만에 연재를 마감하게 되는데, 연재가 끝난 이틀 후에는 단편소설 「폭풍우시대」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중지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된다.<sup>22)</sup> 『동아일보』 편집진은 그 ‘사정’을 상세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연재 중단 이유는 바로 총독부의 검열에 있었다. 1928년 ‘경성지방방법원검사국’에서 작성한 『언문신문불온기사개요』에 따르면 「폭풍우시대」는 치안방해를 이유로 연재 중지 조치를 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폭풍우시대」의 총독부 검열로 인한 연재 중단은 이후 신문연재소설을 준비하던 최서해에게 분명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서해가 『매일신보』의 학예부장이 되고 「호외시대」 연재를 시작하기까지 걸린 칠 개월 가량은 신문이라는 미디어에 장편소설을 연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숙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잡지에 수록된 단편소설과는 달

「향수」(1925.4.6~13), 「오원칠십오전」(1926.1.1~5), 「서막」(1927.1.11~15), 「폭풍우시대」(1928.4.4~12), 『조선일보』에는 「면동이 틀 때」(1929.1.1~2.26), 「車中에 나타난 마지막 그림자」(1929.4.14~23) 등을 연재하였다.

22) “短篇小說 『暴風雨時代』는 事情이 있어 中止하고 名日부터 金八峯의 作 『三等車票』를 잇겠습니다 東亞日報學藝部”, 『동아일보』, 1928.4.14.

23) ‘경성지방방법원검사국’에서 작성한 『언문신문 불온기사개요』는 1928년 1월부터 8월 까지의 언문신문에 수록된 기사들 중 치안방해 혐의로 게재 중지 조치를 받은 기사들의 목록과 그 이유를 작성해 놓은 것이다. 기사의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db.history.go.kr/>

리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경우 미디어의 특성상 연재 도중 검열로 인한 피해를 받을 확률이 더욱 컸다. 따라서 『호외시대』는 총독부의 검열을 일정한 부분 의식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응전략을 실행하며 연재될 수 있었다.

먼저 『호외시대』는 『홍염』, 『탈출기』, 『기아와 살육』 등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기존의 잡지 소설과는 달리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당대 식민지 조선 내부로 이동시켰다. 그동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형상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던 간도체험을 포기하는 데에는 검열로 인한 『폭풍우시대』의 연재 중지 사례가 중요한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여전히 간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의 배경을 간도로 설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서해는 자신의 장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공간 대신 당대 식민지 조선을 작품의 배경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총독부 검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의 선택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폭풍우시대』의 경우 간도에서의 교육 사업이 식민지 시스템을 벗어난 민족교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호외시대』의 경우 조선에서의 교육 사업은 기본적으로 총독부 교육 시스템의 자장 안에 놓여 있으므로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에 용이하다. 결국 『호외시대』가 제시한 ‘야학’은 총독부의 검열을 교묘하게 벗어나면서도 식민지 교육 시스템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 교육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는 더 나아가 온갖 비정상적인 일들이 난무하는 ‘호외시대’를 정상적인 세계로 바꿀 수 있는 희망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호외시대』는 당시의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식민 치하의 현실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한다. 『호외시대』는 당시 조선의 상황이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식민지 체제였음을 직접적

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작품 속에 식민주체로서의 일본인의 형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식민 체제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재조선 일본인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법한데, 「호외시대」의 경우 일본인 등장인물은커녕 그 흔적조차 찾기가 어렵다. 물론 이러한 점은 식민지 시스템 또는 식민자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당시 소설의 재현 체계와 상통하는 것이지만,<sup>24)</sup> 최서해의 초기 단편이 비교적 비정한 사회 현실을 꽤나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그 차이 역시 간단치 않다.

이러한 측면은 총독부 기관지에 포섭된 식민지 작가의 불철저한 시대 인식의 증거로 인식될 수 있지만, 신문과 잡지가 지닌 미디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더 많은 독자층을 포용해야 하는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상 「호외시대」는 그것을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일정 부분 총독부 검열을 의식한 채 연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하고 있는 대목은 작품 속에서도 몇 차례 발견할 수 있다. 양두환은 홍재훈을 만나기 전 사회단체인 '삼우회'(三友會)에 몸담고 있었는데, 작가는 '삼우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삼우회'는 고학생, 공장직공, 실직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모임으로 기술되어 있는데,<sup>25)</sup> 이러한 조직이 어떠한 환경에서 조직되었으며, 어떠한 목적

24) 최근 이해령은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한국의 근대 소설이 '말할 수 없었다' 식민자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염상섭 소설을 통해 논구한 바 있다. 이해령(2012),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 염상섭 소설 속 식민자의 환유들」, 『대동문화연구』 78, pp. 317-349 참조.

25) 삼우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이 전부이다. "그는 찬형의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계동 막바지에 있는 삼우회(三友會)에 있었다 그것은 고학생, 공장직공, 실직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회였다 그들 중에서 아조 할 수 업는 사람 률칠인들은 빈집가튼 회관에서 굶고 먹으며 지내었다 두환이도 그 속에 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환의 십팔원과 고무공장에 다니는 김이란 친구의 이십륙원이라는 급료를 목숨의 출가티 미뒀다 그 수입이 생김 뒤로는 조밥이나 호떡으로라도 입은 속이지 안었다", 최서

을 갖고 유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홍재훈이 반도인쇄사를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이나 신문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두환이 홍재훈에게 맡긴 돈 가방에 대해서도 작가는 '시절이 시절임으로 그는 어떤 단체의 비밀문서인줄로 믿는 모양이었다' 정도의 서술에서 멈추고 있다. 그밖에도 정애의 아버지는 '옛날에 명망 있는 신사였으며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결국 비명에 횡사한 사람'이었다고 하였는데, 그 큰 뜻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sup>26)</sup>

이러한 대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이나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가 총독부의 검열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반면 작가가 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은밀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호외시대』가 총독부 검열에 완벽하게 종속된 채 연재되었다면, 굳이 '삼우회'라는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홍재훈이 인쇄사를 설립하거나 신문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건 등에 대한 언급이 아예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해는 등장인물들을 시련에 빠뜨린 '보이지 않은 어떠한 힘'이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폭력성 때문이었음을 은밀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환은 '야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는데, 이는 식민지 검열 환경 속에서 찾아낸 작가 나름의 대응 전략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 현실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목소리를 표출하고자 했던 초기 단편들과는 거리가 있는 『호외시대』만의 특징이며, 이러한 변화는 분명 신문연재 장편소설이 감당해야 할 총독부의 검열 및 미디어 전략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계몽

해, 『호외시대』, 『매일신보』, 1930.10.23.

26) 최서해, 『호외시대』, 『매일신보』, 1931.5.5.



적 주제 의식 역시 『호외시대』가 5면 가정란에 배치된 신문연재소설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결국 잡지에 수록되었던 최서해의 초기 단편들과 달리 『호외시대』는 총독부 검열을 일정부분 의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응 전략을 미디어적 조건 하에서 시도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3.2. 독자 인식과 소통 의지

총 60여 편에 이르는 최서해의 작품들 중 『호외시대』가 지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신문연재 장편소설’이라는 점이다. 몇몇 단편들이 『시대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에 연재되기도 하였지만, 최서해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작품들은 대부분 『조선문단』, 『신민』, 『동광』 등 잡지에 수록된 단편들이었다. 잡지에 수록된 단편들이 대체로 비교적 제한된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신문연재소설은 좀 더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삼는다.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인 『호외시대』가 더욱 폭넓은 독자대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이 작품이 소위 ‘빈궁문학’이라고 불리는 잡지 수록 초기작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먼저 ‘소설예고’는 기존의 단편소설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식이 거니와 작품이 지닌 주제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유용한 나침반이 된다. 연재 직전 『매일신보』 편집진은 『호외시대』의 연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었다.

만천하독자의 열렬한 환영을 맞든 련재소설 『해괴』(海怪)는 유감 이오나 이삼회로 뜻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릴 소설은 서해(曙海) 최학송(崔鶴松)씨의 작 『호외시대』(號外時代)입니다 최학송씨는 조선문단에 이미 이름 높흔 중견작가로 그의 고히 문장(文章)

과 응성깊은 구상(構想)이 명석한 관찰(觀察)이 이 『호외시대』에 있어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한 지경에 니르게 할 것입니다 더욱 우리 화단의 명성인 이승만(李承萬)씨의 삽화는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만천하 독자와 함의 지면에 나타나기를 기다립시다<sup>27)</sup>

『호외시대』는 양유신이 번역한 『해괴』의 연재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 연재되었다. 조선문단에 이름을 높이던 증견작가 최서해와 당대 최고의 삽화가 이승만의 조합에 거는 기대가 꽤나 크게 느껴진다.<sup>28)</sup> 이러한 '소설예고'는 기존에 연재되던 소설의 독자를 새로운 소설의 독자로 연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곤 했다. 새롭게 연재될 작품과 그 작가에 대한 소개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 또한 여기에는 편집진의 소설 예고와 함께 작가의 말이 수록되어 있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 作者의 말

팔랑거리는 방울소리를 팔아 락엽가티 날리는 호외는 인간사회의 변태적 현상을 알리는 조히조각이다 나는 이제 이 조히조각을 다시 여러분 아페 드리는 것이다 돈! 돈! 돈의 힘이 어찌타는 것을 이 호외를 보시는 이는 다시금 늑기지 안을 수 업슬 것이다 사람이 부리려고 만드려노흔 돈은 도로혀 사람을 부리게 되엿다 돈의 아페는 오륜삼강도 힘을 못쓰게 정의정도도 허리를 굽히지 아니치 못하게 되엿다 모순 갈수등은 나날이 심하여지고 알록 반목은 갈수록 맹렬하여진다 이 인류의 장래는 어찌될런지 그것은 역도할 수 업는

27) 『連載小說豫告』, 『매일신보』, 1930.9.14.

28) 삽화가 이승만(李承萬, 1903~1975)은 1925년 『매일신보』 연재소설 『바다의 처녀』의 삽화를 시작으로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삽화를 오랫동안 전담하였다. 특히, 『호외시대』와 동시에 연재되었던 『삼국연의』, 『오색의 소리별』의 삽화는 모두 이승만이 그린 것이다.

일이니 말할 수 없지만 평화와 사랑을 바라는 현세의 인류로서 이 현상을 보고 이 현상에 쪼들리게 되는 새 어찌 비탄우수가 업스며 고통번민이 업스며 원한분노가 업스랴 그들의 가슴은 이 새문에 찢길 것이오 그들의 팔다리는 이 새문에 썰 것이다 오오! 돈의 힘이 이 인류를 지배하는 날까지 이 인류의 변태적 현상을 알리는 호외의 방울스소리는 쓰치지 안을 것이다<sup>29)</sup>

「호외시대」 ‘연재소설예고’에는 작가 최서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작가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 최서해는 「호외시대」가 ‘인간사회의 변태적 현상’을 알리는 ‘호외’처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다루려는 소설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이 다루려는 주제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품에 대한 구상이 이미 구체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말’은 새롭게 연재될 소설에 대한 독자의 기대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였을 것이다.

또한 「호외시대」는 소설의 연재 중간 ‘讀者의 소리’라는 칸을 만들어 「호외시대」에 대한 실제 독자들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호외시대」가 연재되는 동안 ‘讀者의 소리’는 총 6번 게재되었는데, 이는 더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매일신보』 학예부의 전략이었다. 당시 학예부장이 최서해였음을 감안한다면, 이 ‘讀者의 소리’를 게재하는 데에 작가 최서해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 날새 몫시 추운데 여러 선생님의 건강을 축하하옵니다 귀보의 소설 崔曙海氏의 號外時代를 애독하옵는데 眞愛의 련애에 대하여는 눈물과 감격이 업시는 읽을 수 업습니다 崔선생의 글을 만히 보앗사오나 이번 것은 더욱이 우리 녀성을 잘 리해하신 것이어서 존

29) 「連載小說豫告」, 『매일신보』, 1930.9.14.

경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崔선생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며 댁이 어데인지요.지면에 좀 아르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죄송하오나 비오며 아모조록 쉬지 마시오.오래 써주시기를 비읍나니이다

한국동 전란주 상<sup>30)</sup>

(ㄴ) 謹啓 貴報 連載 中の 小説 號外時代 則 近來 稀有의 優秀 新聞 小説로 評者로서는 勿論 誰某하고 皆悉感激之作品也라 찬형의 今後는 實로 注目되는 바이라 每日 貴報의 配達을 苦待 中이오며 作家 崔先生의 健康을 仰祝不已 하나이다 不備禮 (東大門外 朴南甫)<sup>31)</sup>

(ㄹ) ○ 날새 몹시도 추우신데 선생님 그체 안녕하십닛가 저는 가정 사리에 하로의 피곤한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귀보의 소설 『號外時代』를 읽고 하로의 괴로움을 니져버립니다.귀보의 崔선생님의 감사드립니다.참 이 소설은 재미있습니다.찬형과 정애, 흥준과 경애 여기에 또 두환이 낮하나와 압흐로 어더케 풀녀나갈던지 참 전신이 썰니게 괴대됩니다.아모조록 崔선생님의 건강을 비읍나이다.(김순자)

○ 謹啓 귀보 소설 『호외시대』에서 실로 만흔 감상을 받았스며 이 압후로도 독자는 감상을 주리라고 생각하와 두어마리로 말씀드리는 바이외다 (平壤新陽理 片東熙)<sup>32)</sup>

(ㄷ) 拜啓 貴社의 日益繁昌하음을 伏祝하옵니다.弟貴紙에 連載하옵는 小説 號外時代는 現下 朝鮮의 事情을 如實하게 그려오며 더욱이 젊은 사람의 心境을 어썬면 그리케 잘 글이옵는지요! 孤寂한 정애의 生活이며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不祥한 찬형은 참말 同情업시는 읽을 수 업습니다.그리고 두환의 窸々하고 참다운 인격은 읽는 讀者에게 큰 暗示를 줍니다.作者와 여러분의 安寧하시기를 비읍고 이만 窸치옵니다. (釜山 영주동 金寬壽)<sup>33)</sup>

30) '讀者의 소리', 『매일신보』, 1931.1.20.

31) '讀者의 소리', 『매일신보』, 1931.1.21.

32) '讀者의 소리', 『매일신보』, 1931.1.28.

(㉞) 拜啓 貴社益々隆盛하심을 仰祝하나이다 就貴紙上에 連載하는 小説을 一々히 順序로 보던 中 今般第五面에 連載되는 號外時代가 티 滋味스럽고도 상상키 어려운 小説은 讀者의 눈을 끌어 마음을 滿足식히는 한편 찬영과 정애의 결말 또 홍재운의 엽매이고 엽매이 엮든 직공의 봉급 두환의 결심은 장차 어찌케 해결될는지 苦待中이 옴고 이 小説作家인 崔先生님이시여 氣候萬康하시여 一日이라도 休載되지 안토록 讀者를 爲하여 만흔 苦勞를 무릅쓰고 連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는 中 崔先生님을 紙上에 한 번 出現케 하여 그리워 하는 讀者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千萬伏望이올시다 (平壤 尹炫翼)<sup>34)</sup>

(㉟) 사람의 세상은 다정업는 혼의 순례(巡禮)이다 찢뜻하고 귀여운 사랑도 찬형에게는 최후의 안식할 곳이 아니로다 그는 잠시 동안의 휴게에 지나지 못한다 『호외시대는 엄하게 명령한다』 『찬형아 험악한 압길로!』 오직 찬형과 두환 그리고 정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현재의 안일(安逸)을 써나서 다시금 험악한 길을 밟지 안으면 아니 되겟다 험악한 그의 발자취! 아! 얼마나 세상을 저주할까 (平安北道 泰川邑內 裴東倫)<sup>35)</sup>

‘讀者의 소리’는 연재되는 소설의 본문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또한 순환글과 국한문혼용의 문체를 있는 그대로 표기하거나 투고자의 지역과 이름을 병기하여, 「호외시대」가 계층, 성별, 지역이 다른 다양한 성격의 독자들이 이 작품을 애독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다.<sup>36)</sup> 이것이

33) ‘讀者의 소리’, 『매일신보』, 1931.1.29.

34) ‘讀者의 소리’, 『매일신보』, 1931.2.3.

35) ‘讀者의 소리’, 『매일신보』, 1931.3.11.

36) 박근(1995), 「<號外時代> 연구」, 『동국논집』 14, pp. 95-96 참조.

실제 독자의 투고인지, 아니면 편집진이 독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것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고자의 주소와 실명이 게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일반 독자들의 투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讀者의 소리』는 『호외시대』가 당시 독자들을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호외시대』는 특히 대중 독자의 취미나 반응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연재된 소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讀者의 소리』에는 주로 작품에 대한 짙막한 감상이나 작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있다.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서해 역시 『讀者의 소리』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독자들의 목소리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독자들이 찬형과 정애의 연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애의 연애에 대하여는 눈물과 감격이 없이는 읽을 수 없다』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상한 찬형은 동정 없이 읽을 수 없다』는 등 찬형과 정애의 애절한 사랑은 독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독자들은 『우리 여성을 잘 이해』한다거나 『젊은 사람의 심경을 어찌면 그리 잘 그리는지』라며 작품 속 등장인물의 심리묘사에 대한 찬사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이 역시 독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주로 찬형과 정애의 로맨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讀者의 소리』는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연재하던 최서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간 잡지에 수록했던 단편 소설들의 경우 소수의 지식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작품을 통한 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주로 문단의 동료 작가 내지 평론가들의 월평이나 합평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반해 『讀者의 소리』는 일반 대중 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호외시대』의 신문 연재가 단순한 상업적 전략의 소산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포함하

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호외시대』의 서사 전략은 이러한 독자들의 실제 반응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讀者의 소리』가 소설 연재 도중 삽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호외시대』보다 며칠 빠른 1931년 1월 14일, 15일 각각 진암생(震庵生)이 ‘청구총담(靑邱叢談)에 연재한 『심청전』(沈淸傳)에 처음 『讀者의 소리』가 삽입되었으며, 1월 24일에는 『심청전』과는 지면을 달리하여 5면에 그와 관련한 『讀者의 소리』가 게재되었다.<sup>37)</sup> 1월 29일에는 『심청전』과 『호외시대』에 각각 『讀者의 소리』가 삽입되기도 하였다. 『讀者의 소리』는 『호외시대』가 끝난 뒤 1932년 5월 7일 이성해(李聖海)의 『그들은 어대로』에 한 차례 게재된 뒤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讀者의 소리』가 소설 연재 도중 삽입된 것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매일신보』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단지 십여 차례에 불과한 일이었으며, 그중 여섯 차례가 『호외시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호외시대』의 독자전략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호외시대』가 당시의 독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가) 정애는 작년 느린 가을에 김정자의 쓸림에 소요산으로 단풍구경을 갔다가 자재암에서 하로스밤을 지내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아직도 독자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sup>38)</sup>

(나) 讀者諸賢께 = 『호외시대』는 이로써 쓰티낫습니다 『두환』과 『정애』와 『숙경』은 장차 어찌케 되며 어찌한 관계를 매즐런지는 아직 알 수 업습니다 다만 이쎬까지의 그들 행적을 적었슬 뿐입니다

37) ‘청구총담’에 연재된 한문소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성철(2012), 『일제강점기 한문소설 작가 震庵 李輔相의 행적과 작품 활동 연구』, 『한국학연구』 43 참조.

38) 최서해, 『호외시대』, 『매일신보』, 1931.6.15.

—曙海—39)

『호외시대』에서 서사를 이끌어 가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 속 서술자이다. 여기서 작품 속 서술자는 작가 최서해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용문 (가)에서는 작품 속 화자가 갑작스레 소설을 읽는 '독자'를 직접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 속 서술자의 발화를 순간 작가의 목소리로 일치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특수한 발화는 독자들이 더욱 소설 속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 여겨진다. 또한 인용문 (나)는 작품의 연재가 끝나고 난 뒤 맨 마지막에 덧붙여진 실제 작가의 목소리이다. 작품 연재가 끝난 뒤 이렇게 작가가 직접 독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무언가 그 다음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는 독자들을 배려하여, 작품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을 독자 스스로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사례 역시 작가의 독자 인식과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호외시대』는 독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연재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최서해가 발표했던 초기의 잡지 수록 소설이 주로 문단의 동료 작가 및 평론가를 포함하는 소수의 지식인 독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신문연재 장편소설인 『호외시대』는 더욱 폭넓은 일반 독자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작품의 중심이 작가에서 독자로 이동하였다는 점은 잡지에 수록된 소설과 신문연재소설이 지닌 가장 중요한 결절점일 뿐만 아니라, 『호외시대』의 서사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호외시대』의 주제, 소재, 구성, 인물, 갈등, 문체, 묘사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이러한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

39) 최서해, 『호외시대』, 『매일신보』, 1931.8.1.



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3. 서사 장치와 서술 기법

「호외시대」는 최서해가 이전에 발표한 잡지 수록 소설은 물론 신문에 연재된 단편소설에 비해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다. 「호외시대」의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은 무엇보다 서사 전개 방식이나 인물 형상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호외시대」는 예술적·미학적 차원의 글쓰기보다는 폭넓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호외시대」가 지닌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며, 이러한 흥미 또는 재미의 요소는 현 시대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 독자들에게 대한 윤리적·도덕적 교훈 등과 어우러져 제시된다.

「호외시대」에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바로 주인공 양두환이 벌이는 '위조전보위체사건'이다. 이는 당시 대중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인 장치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성은행 대구지점에 근무하던 양두환은 홍재훈과 그 가족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삼 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은행 사기 사건을 계획한다. 양두환이 은행에서 사만원이라는 거금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매우 치밀하게 다루어지는데, 마치 추리소설의 범죄사건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대목은 대중 독자들로 하여금 커다란 재미를 주었을 것이다. 작가는 먼저 양두환이 은행에서 감쪽같이 사만원을 빼돌린 것을 독자에게 알린 뒤,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완전범죄를 거두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묘사한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유행하던 서양 탐정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서해는 『중외일보』 시절 가스통 르루의 『Le Mystère de la Chambre jaune(노랑방의 수수께끼)』를 「사랑의 원수」(1928.5.16~1928.8.3)

라는 작품으로 변안하여 연재한 바 있다.<sup>40</sup> 최서해는 밀실추리의 고전이 라 일컬어지는 프랑스 탐정소설을 당시의 한국적 정서나 문화에 맞게끔 변안하여 연재하였는데, 탐정소설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최서해의 대중적 서사 장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후 『호외시대』에서 다룬 양두환의 ‘위조전보위체사건’은 탐정소설에 관한 작가의 관심과 취미를 보여주며, 대중 독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조전보위체사건’은 은행의 송금 체계나 그 빈틈에 대한 매우 상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서해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 ‘위조전보위체사건’을 모티프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체 전보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sup>41</sup> 특히, 1925년 11월 7일자 『동아일보』에는 『偽造電報爲替로 八千圓을 詐欺』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은행의 위체 거래 번호와 공통암호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호외시대』에서 양두환이 사용한 수법과 동일하다. 아마도 작가 최서해는 이러한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 양두환은 삼성은행의 ‘위조전보위체사건’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인 은행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원하는 돈을 수중에 넣게 된다. 작가는 양두환의 범죄 사실을 미리 알려두고 과연 어떻게 삼성은행의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를 착실하게 제시해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고, 흥미로운 범죄사건이 유발

40) 최애순(2010), 『최서해 변안 탐정소설 <사랑의 원수>와 김내성 <마인>의 관계 연구 : 식민지시기 가스통 르루의 <노랑방의 수수께끼>의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 참조.

41) 『偽造電報爲替로 千五百圓橫領』, 『매일신보』, 1921.1.24; 『郵便事務員이 환전표를 위조행사』, 『동아일보』, 1921.6.17; 『電報詐欺 범인은 피착』, 『동아일보』, 1928.9.28; 『電報爲替偽造 범인은 룡산사에서 인치』, 『동아일보』, 1928.11.26.

하는 긴장과 스타일을 경험했을 것이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견고한 장치가 무너지는 데에서 오는 일종의 통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보통의 신문연재소설 또는 통속적인 대중소설은 선인과 악인의 갈등을 서사 진행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과 악의 갈등과 대결은 독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호외시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선인(善人)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전체를 이끌어 가는 두환, 찬형, 정애는 물론 재훈, 숙경, 경숙, 경애, 찬형 모친, 찬형 부인 등 대부분이 당대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한 인물들이다. 찬형은 정애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본처를 포기하지 않으며, 찬형의 부인과 정애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물론 작품의 중반 이후에 등장하여 정애를 곤경에 빠뜨리는 김정자나 정애를 강제로 욕보이고 첩으로 삼은 허성찬, 경애를 포주에게 팔아넘긴 김홍준 등이 악인의 계열에 속하나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전체적인 비중 역시 미미한 편이다.

「호외시대」는 선과 악으로 구별되는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선한 주인공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힘과 대결하는 것을 통해 서사를 진행해 나간다. 특유의 근면 성실함으로 사업을 일으킨 착한 자본가 홍재훈의 사업은 보이지 않는 힘, 즉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두환은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과 싸우기 위해 전신송금위조사기를 실행하게 된다. 찬형과 정애 역시 위기의 상황에서도 야학을 통한 교육 사업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 작가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삼성은행을 비롯한 조선의 경제문제를 지적하면서 '거기에는 딴 이유가 있었다. 그 깊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나 알았다'<sup>42)</sup>고 하거나, 인쇄소, 학교, 신문사에 걸쳐 있던 홍재훈의 사업이 결국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진출에

의해 몰락하게 된 것 역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관련이 있음을 은밀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밖에 『호외시대』가 이성 간의 미묘한 연애 심리를 매우 중요한 서사 진행의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찬형과 정애, 두환과 경숙, 숙경, 홍련의 이성 관계는 가정란이 목표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반 대중독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사실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사랑이라 칭하긴 어렵다. 당시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찬형과 정애의 사랑은 유부남과 미혼녀의 관계라는 점에서 항상 위태롭다. 찬형과 정애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들의 안타까운 연애는 『호외시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축 중의 하나이다. 또한 두환의 경우에는 홍재훈의 첫째 딸인 경숙과 애끓는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지만, 결국 경숙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후 두환은 여류화가이자 한 가정의 부인인 숙경,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기생 홍련과 만나게 되는데, 이들과의 만남은 결국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작가는 우정인지 사랑인지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는 남녀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섬세하게 포착하여 제시된 남녀 간의 애뜻한 심리 묘사는 작품의 진행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

작가는 이러한 남녀 간의 야릇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예컨대, 운동회 참석차 지방에 내려간 찬형과 정애가 여관방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거나, 찬형을 정애의 집에 자주 출입시켜 에로틱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찬형은 정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의 몸에 손을 대고 마는데,<sup>43)</sup> 이 사건은 찬형과 정애의 시선에서 각각 섬세하게 다루어져 많은 독자들

42) 최서해, 『호외시대』, 『매일신보』, 1930.10.1.

43) 최서해, 『호외시대』, 『매일신보』, 1930.12.25.

의 호응을 얻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환 역시 유부녀인 숙경과 여행지에서 만나 매우 가깝게 지내거나, 우연히 부산에서 기생 흥련을 다시 만나 하루 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찬형과 정애, 두환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제어한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개인의 욕망보다는 야학과 같은 방법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제까지 전달하고자 하였다.<sup>44)</sup>

결국 이와 같은 서사 장치와 서술 기법은 『매일신보』 학예면의 지면 배치에 따른 독자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면 ‘가정’란의 주된 독자층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반 대중독자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그 안에 연재된 「호외시대」 역시 이러한 지면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면의 「삼국연의」가 한자에 익숙한 남성독자들을, 4면의 「눈보라」가 소년소녀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재된 것이라면, 「호외시대」는 그 나머지 한글에 익숙한 여성 및 일반 대중독자들을 위한 연재물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호외시대」는 『매일신보』의 학예면의 분화 및 독자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연재된 유일한 최서해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이었다.

최서해는 「호외시대」의 연재를 마친 후, 그 다음해인 1932년 7월 지병인 ‘위문협착증’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32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하였다. 「호외시대」는 병고와 싸우며 어렵게 완성한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장편소설이 되고 말았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본 연구는 최서해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인 「호외시대」를

44) 최서해, 「호외시대」, 『매일신보』, 1930.12.16.

『매일신보』에 수록된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호외시대」라는 개별 텍스트가 지닌 문학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의 시각과는 달리, 텍스트가 연재된 미디어적 조건이나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최서해의 「호외시대」는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신경향파 소설이 주로 『조선문단』, 『개벽』, 『신민』 등의 잡지에 연재되었다는 점과 구별된다. 「호외시대」가 작가의 간도 체험을 바탕으로 한 빈궁문학과 크게 구별되는 이유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변모했다기보다는 신문과 잡지의 차이, 또는 개별 미디어의 성향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호외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연재된 『매일신보』라는 신문 매체의 담론 지향과 소설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최서해가 『중외일보』에서 『매일신보』로 이동하게 된 계기, 『매일신보』에서 학예부장이 되던 과정, 『매일신보』의 학예면의 지면 배치와 「호외시대」 연재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최서해가 「호외시대」를 연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호외시대」가 당시 『매일신보』 학예면의 지면 배치 전략에 따라 5면 '가정'란에 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호외시대」의 집필 방향이 『매일신보』의 편집 방침과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주로 한글에 익숙한 여성 중심의 대중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인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장에서는 「호외시대」의 『매일신보』 연재 양상과 그 의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예컨대, 「호외시대」가 총독부 검열을 의식한 채 연재된 작품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은밀하게 담아내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자의 말, '독자의 소리', 서술자의 독자 지시 등을 통해 여타 작품에 비해 「호외시대」가 특히 일반 대중 독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추구한 작품임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밖에 「호외시대」의 서사 장치와 서술 기법이 탐정소설의 기법을 활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힘과의 대결구도로 이루어진 점, 이성간의 미묘한 연애 심리 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또는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고, 「호외시대」의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호외시대」라는 작품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호외시대」에 대한 편향된 문학사적 시선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이 시기 신문연재소설이 지닌 독특한 자질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자 료】

- 곽근 편(1987), 『최서해 전집』 상·하, 문학과지성사.  
곽근 편(1997), 『최서해 작품, 자료집』, 국학자료원.  
곽근 편(2004), 『최서해 단편집 - 탈출기』, 문학과지성사.  
『매일신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철필』

### 【논 저】

- 곽 근(1995), 「<號外時代> 연구」, 『동국논집』 14.  
김성철(2012), 「일제강점기 한문소설 작가 震庵 李輔相의 행적과 작품 활동 연구」, 『한국학연구』 43.  
김창식(1995), 「1930년대 한국 신문소설의 특성과 그 존재의미에 관한 일연구: 최서해의 『호외시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2.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1993), 『친일파99인』, 돌베개.  
윤대석(2002), 「『시대정신』과 『풍속개량』의 대립과 타협 - 『호외시대』론」, 『최서해 문학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이혜령(2012),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염상섭 소설 속 식민자의 환유들」, 『대동문화연구』 78.  
이희정(2013), 「193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 문학의 전개 양상: 미디어적 전략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정진석(2005),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조남현(1988), 「崔曙海의 『號外時代』, 그 갈등 구조」,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최애순(2010), 「최서해 변안 탐정소설 <사랑의 원수>와 김내성 <마인>의 관계 연구: 식민지시기 가스통 르루의 <노랑방의 수수께끼>의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  
한수영(1993), 「돈의 철학, 혹은 화폐의 물신성을 넘어서기」, 『현대문학의 연구』 4.  
한점돌(1995), 「최서해와 프로 심파다이저의 미학: 장편 『號外時代』를 중심으로」,



『서강어문연구』 Vol. 3 No. 1.

원고 접수일: 2014년 3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4년 4월 18일

계재 확정일: 2014년 4월 30일

ABSTRACT

---

A Rediscussion of *Ho-oe Sidae*

- Focused on Its Characteristics as a Serial Novel of the Newspaper *Maeil Sinbo*

Bae, Jeong S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oe Sidae*, the only full-length novel written by Seohae Choe, with focus on its characteristics as a serial novel of the newspaper *Maeil Sinbo*. Thus, this paper is characteristic in that it tries to take a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Ho-oe Sidae* and the core elements of its narrative unfolding in terms of the media arrangement and strategies of *Maeil Sinbo*. As such, it is different from existing studies that have evaluated its value in terms of literary history.

*Ho-oe Sidae*, published as a serial novel owing to the newspaper's strategy of the independent characterization of the art and science page, is taken as a case that allows us to specifically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serial novels in the 1930s. Though he was aware of censorship, Choe tried to carry out his own counter-strategy in terms of the work, and reflected on communication with popular readers in various ways through the work. We can also observe that various narrative devices and descrip-

---

\*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tive techniques were used to attract readers' interest.

Above all,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consider the negative recognition of the bulletin fo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aeil Sinbo* or of newspaper serial novels, and more specifically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Ho-oe Sidae as a newspaper serial novel.